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김명자·이정우·계선자·박미석**·송말희***

우리사회의 학벌주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오로지 공부만 강요되며, 대학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적
도인 학업성적은 그들의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8명의 인문계 고등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성적지상주의가 고등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유형과 학업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자녀들의 학업달라지를 하면서 자녀만
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함께 밝혀 본 결과, 학생
들은 학업부진과 부모나 교사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들 역시 자녀 학업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소질을 평가하는 대학입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
다. 또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풍부한 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CA시간이 학생들이 자신의 특
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에 있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바람직한 역할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논문은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
의 2차 연도 연구인 '청소년 문화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의 일
부분임.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모형은 숙대 홈페이지(www.sookmyung.ac.kr)
의 BK21을 참고하기 바람.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후 연구원

I. 서 론

우리 사회의 대학을 나와야 대우받는 사회풍토, 능력보다는 명문대학 졸업장을 중시 여기는 풍조, 학력 차에 따른 직업과 임금의 격차 등은 학력주의의 만연을 가져왔다. 즉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얻게되는 지식, 기술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획득한 학력 그 자체 즉 교육자격증만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학력주의는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과 그에 따른 과열과외, 재수생문제, 입시부정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병폐를 낳아 왔다(이혜영, 1995). 또한 이러한 학력주의는 학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인 인간 모두가 인간답게 창의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점을 상실한 채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은 창의성, 자율성, 협동심 함양을 통한 전인교육보다는 출세수단과 지위향상,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한 일류대학 입시위주의 지식중심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빈번하면서도 상대적인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 성적에 따른 교사들의 학생차별 등의 비인간적 교육풍토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병리현상을 경험하게 한다(Fraser, 1996; O'Donnel, 1995).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자녀의 성적이 부모와 가족의 성공으로 동일시되는 강한 집단성과, 부모는 자신들이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자식에게 실현시켜 보고자 하는 과잉기대와 대리성취를 강요함으로써 성적과 결부시켜 자녀를 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으로 고민하고 시험불안과 입시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김

경신, 1994; 김명자, 1994; 이미숙, 1994).

이렇듯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업부진 때문에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으로 인한 압박을 계속 받게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계선자 외, 2001), 많은 연구결과들은 공부와 학업성적이 가장 우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고(이경희, 1995;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황정규, 1990; 등), 특히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진로문제는 전학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임을 밝히고 있다(조유형, 1995). 그리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입시병'이라고 할 정도이다(김종주, 1990).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대학입시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로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ugita & Crittenden, 1990; Sung, Lubin & Yi, 1992).

한편 성적과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등학생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도 경험하며,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사실상 맡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최규련, 1996),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로문제가 청소년자녀를 둔 중년기 어머니의 지각하는 것과 조식화 모델에 비추어(고성혜, 1994), 즉 우리사회의 학력주의는 가정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발달 위주의 전인교육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 막대한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최연실, 1996). 특히 우리의 교육상황에서 자녀교육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사교육비로 인해 어머니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시와 신도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약 66.7%가 사교육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통계청, 1999), 가계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경쟁적이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어머니

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월·박배진, 1999).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배려로 인한 자신의 생활제약, 자녀에 대한 실생활 교육의 부재, 자녀 뒤통다끼리로 인한 육체적 부담 등으로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고성혜, 1994; 김정신, 1994; 김명자, 1994), 이는 부부관계 나아가 가족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입시위주교육에 의한 성적지상주의는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그들의 삶을 제약하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시위주교육에 의한 성적지상주의가 고등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유형과 학업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

스트레스를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연구에 치중하였던 바, 그들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내지 못하였고 그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연구자의 시각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의 이해를 강조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들이 자녀학업으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심도 있게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지상주의가 고등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고등학생들이 겪는 학업스트레스의 정도 및 학업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자녀학업으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고등학생과 그 어머니들이 겪는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학업성적이 지니는 의미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겠지만 학업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으로 면접에 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녀의 학업뒷바라지를 거의 담당하면서 그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어머니들도 함께 면접하였다. 연구자들이 알고있는 서울시소재 10개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 제보자를 모집하였다. 학생들이 성별과 거주지역, 성적, 계층 등에 의해 학업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강남과 강북에서 각각 성적이 상위인 학생과 하위인 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열 등도 감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교사들의 도움으로 제보자들을 구하였다. 선정된 제보자들에게 연구자들이 찾아가서 본 연구의 교육내용과 교육목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후에 동의를 구한 결과 8명의 학생과 그 어머니들이 동의를 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보자명, 연락처, 제보자명, 연락처, 학년, 학급은 <표 1>과 같다.

<표 1> 제보자의 일반적인 사항

제보자	성별	학년	거주 지역	형제순위	성적	母 학력	母 취업여부	父 직업
사례 1	남	2	강북	1남 2녀 중 막내	상	대졸	비취업	의사
사례 2	남	1	강남	1남 1녀 중 장남	중	대졸	남편사업 도와줌	사업
사례 3	남	2	강북	외아들	최상	대졸	비취업	교사
사례 4	남	1	강남	외아들	하	고졸	자영업	父不在
사례 5	여	2	강남	4남매 중 장녀	중하	중졸	비취업	노동
사례 6	여	2	강남	2녀 중 막내	중	대졸	비취업	약사
사례 7	여	1	강북	3자매 중 장녀	중상	고졸	비취업	판매업
사례 8	여	2	강북	삼남매 중 둘째	중하	고졸	비취업	소방관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의해 겪는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업이 고등학생들과 그 어머니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방법보다, 개인에 대한 밀도 있는 사례연구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수연, 1998; Tylor & Bogdan, 1984)으로 알려져 있는 질적 면접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방법을 취하였다.

2000년 11월 - 2001년 2월 사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면접이 끝난 후 어머니와 1차 또는 2차의 면접을 하였다. 한번의 면접시간은 보통 2시간 30분에서 세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장소는 연구자의 학교 연구실과 고등학교 주변의 찻집 그리고 학생의 집 등이었다. 제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접내용

을 녹음하여 추후의 분석자료로 삼았으며, 피험자의 반응이나 분위기 등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가 녹취록에 참고자료로 기록하여서 분석시 참고하였다.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봄으로써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그 어머니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면접은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하다가 연구자와 제보자간에 어느 정도 래포가 형성된 후에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제보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면접을 시작하고 제보자의 답변에 따라 그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고등학생들이 겪는 학업스트레스

1) 학생 스스로 느끼는 학업스트레스 : “행복은 성적순, 성적은 삶의 전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 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인성을 위한 학업이 아닌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이며, 그에 따라 성적이 학생에 대한 평가의 전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두 성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나 불만으로 인해 심각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은주, 1999).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성적은 대학진학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현재의 성공과 실패뿐 아니라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즉 학생들은 교육을 계층상승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학업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미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못해 공부를 한다.

스트레스 물론 엄청 많이 받죠, 공부 안되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장사해서 돈이나 벌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자니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초라하잖아요, 날 위해 진짜로 공부해야 돼요. (사례7)

특히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성적은 학생 자신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된다. 즉 진로가 단지 성적으로 결정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단지 ‘성적’으로 인해 좌절될 때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발적인 존재로서의 성장을 방해받게 되며, 이는 곧 교육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성적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우선 성적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확실히 모든 건 다 성적이... 아무리 하고싶고 원해도 성적이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사례8)

그리하여 사회의 시선과 비교 때문에 마지못해 타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욱 심한 스트레스는 경험하게 된다. 즉 외재적이고 비본질적인 동기로 인한 공부는 결코 공부다운 공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된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많이 엄청 받지요... 사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인정받으려면 공부 잘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사회가 그렇잖아요. (사례5)

이러한 이유로 학업스트레스를 받은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 혹은 자긍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이성식, 1996; Liu et al., 1992; Owens, 1994; Rosenberg. et al., 1989).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보아 학업이나 앞으로의 일에 자신감이 없게되어 결국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된다 그리하여 “자아 상실감”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곧 자신감의 결여로 이어져, 학업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IBM’(이미 배런 몸)의 생활을 함으로써(김소희, 1991) 사회에서 말하는 노는 애들로 전락하기 쉽다.

전 솔직히 대학 갈 수 있을지 걱정이구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요... 첫째는 공부때문이지요... 글썽요 비교되는 거... 스트레스 어우~~~~~ 그거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전 공부 포기한지 오래예요... 아주 공부를 포기했죠... (사례5)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 느끼기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성격변화까지 경험하게 하여 생활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스트레스 당연히 받죠... 제도 애들도 전부 다요... 머리 빠지는 애들두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이 나이에 머리 빠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젊은 나이에... (사례3)

공부하면은 막 이렇게 신경질 많이 내고.. 그래서 고3병 같이 그런 게 생기 더라고요, 공부하면은 짜증나니까... 친구들한테도 성질 낼 때도 있고 좀 신경질적으로... 원래 안 그랬는데... (사례3)

그러나 학업스트레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공부를 통해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본 학생들은 성취감을 얻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이겨내기도 한다. 물론 이런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로서 공부를 해볼만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구체적인 학업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달성하였을 때의 성취감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생활전반에 대해 자신감에 차 있다. 이는 학업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학업성적도 더 우수하며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노경희, 1998)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사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학업성적은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이는 곧 더 높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한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대 가고 싶잖아요... 최고니까.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한번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성취한다는 거 그걸 맛본 애만 알죠. 시험볼 때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느낌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례3)

이렇듯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은 성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좌절도 모두 성적이 기준이 된다. 조용환(1999)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학교(=교육) → 직업(일) → 인생(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

다. 즉 좋은 대학이 좋은 직업을 보장하고 이것은 곧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직선적이어서 앞의 것을 얻지 못하면 뒤의 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인생 전체가 걸린 대학진학을 위해 스스로 그리고 마지못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며, 학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2) 부모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 “공부 잘하는 것만이 효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급격한 정치적 변동, 학력에 따른 고용과 임금 격차,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승문주의적 전통, 병목적인 교육선발제도 등에 대한 인식에 의해 자녀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유산인 학력과 학벌이라는 문화자본을 상속시켜 주기를 희망한다(강무섭 외, 1992; 이지연, 1993).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호기심이 강해지고 있으나, 교육은 개인의 발달적 측면보다는 그가 속한 가족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 추구되었던 전통사회의 교육적 의미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이미숙, 1994). 즉 교육이 자녀의 개인적 발달과업이라기보다 가족적 과업으로 인식되고 자녀의 명문대 진입이 가족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자녀교육 자체가 ‘가족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손승영, 2001). 이런 현상은 곧 부모의 교육열로 나타나며, 특히 현실적으로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다양한 통제와 간섭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머니들의 지나친 교육열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고등학생들이 어머니에게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공통적인 이유는 그들이 항상 공부만을 외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상황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도

오직 공부하라는 소리만을 듣게 되어, 결국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압박은 심리적인 통제나 행동에 대한 규제를 뜻하는 성취압력으로, 이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정도가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과잉관심을 의미하며, 자녀로 하여금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케 하여 도리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ampbell, 1994).

만나면 그냥 계속 공부하라 그거죠... 엄마하고 얘기는 거의 짜증나요, 엄마하고 있으면... 잠 잘 때까지... 그제 공부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공부죠... (사례2)

엄마가 맨날 독하면 독서실 가라고 그러고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너 독서실 안 가니?” 그래요.. 엄마는 되게 스트레스 줘요, 엄마는 안 주는지 알고 있는데요 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나름대로 할려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요 더 하기 싫어지고 하여튼 엄마 땀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례6)

어머니의 교육열은 단지 공부하라는 언어적 압력뿐 아니라, 학원과 과외에 대한 정보와 시간분배, 그리고 자녀의 교우관계가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개입 등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들과의 면담과 참여 관찰 결과, 자식이 공부를 잘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부모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간접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희복, 1992)와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대한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개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반면, 학생들은 어머니들의 이런 활동을 ‘지원’으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존중의 결여와

학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하죠 학원을 정해 준다거나 시험시간표 나오면 공부시간표를 짜 준다거나... 특별히 신경 쓰는 거는... 중3까지 우리 애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고1때 어떤 애를 만나면서 옆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탕 같이 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례2의 똘)

공부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지요... 뭐든지 간섭하시거든요...죽겠어요... 저희 엄마가요 완전히 너무 세밀해 가지고요, 학원만 갔다 오면 거기서 뭐 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숙제 안 하나...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장난 아니예요... 시험성적도 항상 제보다 먼저 알아요... (사례2)

부모들은 이런 다양한 간섭과 통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자녀에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아닌 부모의 욕구와 바람이 반영된 목표를 강요당하게 되고,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삶의 주체인 자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오로지 부모의 명령만이 있는,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근데 아빠가 또 비싸다고 국립대를 가래요, 서울대 같은... 솔직히 서울대는 보통하면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반에서 1, 2등하고 전교에서 5등하고 그런 애들도 서울대 가는 게 힘든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 (사례2)

이러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가족이라는 집단의 욕구를 반영하게 된다(김명자, 1994). 특히 사회계층이 상승이가¹⁾ "부모의 기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모들은 암묵적으로 자녀가 부모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여 가업계승이나 지위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자녀를 이용하게 된다(손승영, 2001). 사례1의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대로 의사인 의사가족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당연히 의사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자녀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저는 그러거든요, “너무 부담감 갖지는 말고 어떻게든 네가 치대 가야 되는 거는 명확한 일이다. 네가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치대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파가 얘기하면 “우리 집안은 의사집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울대를 얘기하면서 압박감을 주는가 봐요. (사례1의 母)

부모님의 기대가 솔직히 버거워요 되게요... 아무리 골 터지게 해도 서울대 치대는 못 갈 것 같은데 아빠랑 엄마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다른 애들보다 부담을 몇 배 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샌 계속 재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1)

또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보충하거나 이루려는 부모의 한풀이식 교육관에 의한 대리성취 욕구는 자녀들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엄명용, 2000). 그리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한 대리성취 도구로 전락하게 되며, 특히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녀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자녀들에게 심적인 부담이 된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에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애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시켰는데... 실패했어요, 수학교 4학년 때부터 시켰는데... 못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욕심 버리자 그러는데... 욕심 버렸다버렸다... 하면서도 그게 그리 쉽게 잘 안 되네요. (사례2의 母)

남자 친구 사귀고 싶은데.. 엄마한테 그런 소리하면 한심해 하는 거 같아요. 엄마는 항상 결론으로 “네가 그런 거 신경쓰면 공부에 방해를 받으니까.. 너

는 엄마보다 더 멋진 여성이 되길 바라는 데 하나라도 걸릴까봐” 그런다고... 엄마는 6남매 중에 둘째라서 남동생들이 공부 먼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돈 벌어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돈 걱정 안하고 사는 딸자식 됐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무조건 선생님이 되어 된다고 그래요. 엄마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대학을 못 가서... 그래서 저도 선생님될려고 그러는데 성적 때문에 걱정이예요. (사례8)

그리하여 자녀가 부모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성적을 못 받거나, 부모와 자녀가 기대하는 성적에 차이가 많이 되면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일 길 바라는 부모일수록 청소년의 부담감을 증가시켜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저조하다는 연구결과(Campbell & Manddel, 1990)와 부모가 학업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할수록 청소년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가져와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Ketsetziss, 1998)와도 일치한다. 결국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비합리적인 기대는 도리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학업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낳게 된다.

엄마는 “공부도 못 하는 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저번에는 한 번 모의고사를 못 봐 가지고요... 그런데 엄마가 또 막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는 울었어요 평평 ... 그래서 요즘엔 성적표 안 보여 드려요. 점점 떨어지니까 점점 보여줄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전에는 맨날 잣다 주고 못 나와도 그랬는데요, 이제 진짜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못 보여주겠어요. (사례8)

이렇듯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생활의 규제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어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가능한 피하려 하여 결국 가족의 불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대리성취욕구는 자녀의 소질에 따른 진로나 직업선택이 아닌 부모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타율적인 자녀를 만들게 되어 건전한 사회성원으로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 바람직한 사회화의 산실이어야 할 가족이 도리어 가족의 도구적 기능만 강조함으로써 가족원이 기계화되고 가족이기주의의 만연을 초래하고 있다(김명자, 1994).

3) 교사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 “오직 성적에 따른 사랑과 차별”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위해 교육을 하고 있다. 즉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여 기회와 지위를 배분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조용환, 1999). 그리하여 학업성적은 교사가 학생들을 차별화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질서와 위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교사들이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평가하는 제일의 원칙은 학업성적으로, 교사는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이한 행동이나 성취를 기대하며, 그에 따라 각각의 학생들에게 달리 행동한다. 그리하여 교사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낮은 잠재력을 지닌 학생에게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교사의 다른 기대가 이후 학생들의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수연, 1998).

즉 교사는 똑같이 문제행동 했을 경우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제특권’을 주며,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중처벌’을 줌으로써,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소외감, 모욕감은 그들을 무능감에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의 원인이 되어(이혜영, 1995),

학습동기 결여, 성취도 부진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정은주, 1999).

전 성적 때문에 내 자신이 못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 많아요... 똑같이 땀을
사외도 공부 잘하는 애가 시오면 선생님이 틀려져요... 그럴 때는 선생님도
믿고 웃긴다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례7)

그러하여 고등학생들은 선생님과 관계를 존경하거나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지 꿔고 싶어도 꿔올 수 없는 족쇄로 느끼게 된다. 즉 교사를 인간적인 상호관계의 대상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이란 잣대를 가지고 공부만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권위자로 인식한다.

존경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성적 때문에 짜증나는 소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례2)

엄청 발조.. 선생님들 때문에.. 평균 일 이점 때문에 대학 못 갈 수 있다구.
“너 이 점수 갖고 어디 갈려고 그래” 이렇게 날마다 선생님들이 검주고 그러니깐.. (사례4)

또한 교사들은 성적의 서열로 학생들의 위상을 정하고 심지어는 학생의 인격을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의 과정임에도, 교육을 수행하는 한 축인 교사의 이런 태도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교사의 소임을 망각한 행위로 학생들의 정서발달 나아가 인간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너 몇등 너 몇등 이렇게 등수로 애들을 보니까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거 같아요... (사례3)

그분들은 무조건 성적만 보고 애들을 판단하니까 공부 잘 하면 좋은 애 못 하면 나쁜 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례1)

그리하여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단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 반발심을 갖게된다. 그리하여 이수연(1998)이 지적하였듯이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자신들이 단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의 엑스트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어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학교생활 제일 힘든 건 선생님들이 짜증나게 하는... 편애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떠돌다 걸려도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공부 못 하는 애들은요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나가야 되요... 우린 개네들 틀리리예요. (사례5)

선생님한테도 문제가 많아요... 개는 전교에서 일등하는 연대.. 지가 형소담 당이면 저도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 형소하면 개는 앉아서 책만 봐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지적을 안 해요... (사례6)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육장면을 전제로 한 만남이지만,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김계현 외, 2001). 즉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화과정에서 역할모델이 되어 교사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학생들의 인간적 성숙을 위하여 인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이런 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오로지 입시위주의 학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일 뿐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교사들의 공부에 대한 압력과, 성적에 의한 평가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교사들은 성적에 의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며, 심지어는 공부를 못하거나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못하는 아

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더 이상 공부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게 하여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탈선이나 비행에 이르게 한다(김향초, 1998). 또한 교사의 성적에 따른 학생차별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를 잃게 만든다. 이는 우리의 고등학교에는 소수의 '성공자'를 위한 교육이 있을 뿐 다수의 '실패자'를 위한 교육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

2. 자녀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1) 자녀의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 “자녀의 성적은 곧 나의 성적”

이지연(1993)은 우리나라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열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학벌에 의해서 결정되는 학벌위주의 사회, 자녀교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자녀의 학업정도가 어머니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그리고 자녀수가 적어짐에 따라 자녀에 대해 더욱 더 강한 기대를 하게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머니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핵가족 경쟁사회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가족주의의 집단성이 강하게 작용한다(이미숙, 1994).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녀인생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고등학교시기에 속한 자녀의 학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오로지 성적에 정신을 쏟게 된다. 그리하여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바람과 욕심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도 그것을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세이고 의무로 생각한다. 결국 그들은 자녀의 성적을 자신의 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태

도나 성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제일 힘든 건 애가 공부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지가 얘기하기는 컴퓨터하구 봉사활동해서 대학간다구 그러는데 저는 미치는 거죠... 믿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사례4의 母)

특히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 스스로 불만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즉 우리의 사회분위기에서는 자녀의 학업부진은 곧 어머니의 무능함으로 이어지고 자식뒤탈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된다(손승영, 2001).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도리를 다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모도리를 다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자녀교육에 매달리 수밖에 없지만, 자녀의 학업부진으로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의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으로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애 인생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애기가 나오면 평가절하되더라구요... 친구엄마가 우리 애 칭찬을 막 하면서 성적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까지 전부 같이 넘어가요, 나도 그런 게 잠재돼 있고, 나부터도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 전체가 안 좋게 느껴지더라구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게 스트레스지요, 정말 스트레스예요. (사례7의 母)

이러한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자녀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어 자녀들도 느낄 수 있게 되며, 자녀들은 어머니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많았다는 연구결과(이재구·김영희, 2000)처럼, 자녀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학업동기로 작용하기보다는 도리어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엄마가 내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엄마 생각대로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더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요...

(사례8)

그러나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성격까지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아 자녀에게 목표를 낮출 것을 권하기도 한다. 즉 어머니들은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우리 교육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인식하고는 있지만, 자녀가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는 이런 인식을 내색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도리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다.

애가 공부 때문에 짜증내고 그런 거 보면 속상하기도 해요. “니가 기대치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니가 꼭 서울대를 갈려고 하니깐 이렇게 힘들고 성격도 나빠지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러는데...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니까 그런다” 그러지요... 부모가 기대치를 좀 낮추면은 애들도 좀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례3의 母)

2) 자기생활의 제약과 자녀의 생활교육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 “성적만 오르면 내 모든 것 다 바치리”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의 책임자로서 자녀의 좋은 성적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

한다. 그리하여 어머니들은 자기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생활스케줄을 자녀의 생활에 맞추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통제하게 된다. 물론 이런 통제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이 뒷전으로 밀려나 서글프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한다(고성혜, 1994).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므로 자녀를 위해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기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매를 때문에 제 시간 그러니까 제 생이 없죠, 그러니까 관심 가질 때라고는 아이들 밖에... 아이들 때문에 제 모든 게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지치고 힘들죠..., 쌓이고 답답하지요. (사례2의 母)

가능하면은 애 올 때는 집에 있을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전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래도 엄마가 있으면 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애 오기 전에 일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생활했어요... 물론 아주 급할 때 그럴 때는 불편하거나 애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뭇가라는 생각도 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엄마로서의 뭇이라고 생각하면 좀 덜해요. (사례3의 母)

이렇게 어머니의 생활마저도 저당 잡히는 가정에서의 학업위주의 교육은 일상생활 교육의 부재를 낳게 되어 부모가 자녀들의 손발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줌으로써 자녀들은 자신의 방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타율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된다. 즉 어머니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적과 공부를 위해 생활교육을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모순을 보이게 되고(이지연, 1993), 결국 학력을 위해 가정에서 행해야할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조용환, 1999). 즉 어머니들은 전인교육을 위해 생활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성'과 성적으로 자녀와 자신마저 평가받는 '현실'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현실을 중시하여 ‘성적’을 선택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성’ 때문에 고민을 겪게 된다.

내가 집에 있어서 방청소니 뭐니 다해 주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하라고 그렸으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갈등이 심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니네는 공부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이미 습관이 되버린 거예요... 문제지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례8의 母)

따라서 교육이 개인적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자녀의 지적 발달과 학업의 성공만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부모의 성적제일주의는 자녀의 인간성 교육의 외면을 낳게 된다. 또한 자녀에게 공부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나아가 사교육의 팽창과 고학력화 현상이라는 사회문제를 낳게 된다.

3)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인 스트레스 : “돈들인 만큼 성적도 오른다”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의 몰두는 곧 어머니들간의 경쟁을 가져오게 된다. 즉 자신만이 최고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녀를 일류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교육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교의 파행적 수업운영에 대한 불만과 선생님에 대한 불신 등 학교환경에 대한 불신과, 다른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만 제외되면 경쟁에서 낙오가 되리라는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어머니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집착하게 된다(김희복, 1992; 이지연, 1993).

현시점에서 사교육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고 다른 애들하고 경쟁이 안되니 그게 애석하지요,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 한 과목에 50만원짜리 시켰는데... 그러니 부모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사례6의 母)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이 사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며,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전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을 잘 못 해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를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 즉 어머니들은 사교육이 자녀교육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고 믿으며(김시월·박배진, 1999) 자녀에 대한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함으로써(이지연, 1993), 투자를 제대로 못 해준다는 생각이 들게되면 스스로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장애가 된다는 자격지심을 갖게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지어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제일 힘든 건 경제적인 거죠... 사회나 주변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안 시킬 수가 없죠...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하는 것도 그나마 뒷바라지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니까 더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지요... (사례8의 母)

어떤 사람은 과목당 600만원, 800만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꿀이야” 그러면서도 “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요... 그렇게 못 해줬는데 애가 만약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면 “내가 저것두 못 해줘가지구 애가 대학을 못 가는가” 그런 생각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걸 시킬 수는 없고 답답하지요... (사례4의 母)

부모들은 공부 잘 하는 조건을 ‘타고나는’ 조건과 ‘밀어주는’ 조건으로 구분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고나는 조건이나 밀어주는

조건 모두 자신들의 탓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김희복, 1992). 이런 책임감과 함께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맞물려서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그로 인한 사교육에의 맹신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 본인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3.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들의 자녀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바람 :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경험한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대학진학위주의 학교교육과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루어야할 다양한 발달들을 저해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이나 독서 등 폭 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은 이런 경험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고등학생들에게 교양 쌓기나, 인격성장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책은 거의 안 읽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 두 권 읽었나... 지금까지 솔직히 책 읽을 여유가 없었으니까... 어휘가 안 되서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전소설 읽다보면 너무 어렵고 익숙치도 않고요. (사례3)

애들이 공부만 해야하니까 정말 읽어야 할 책들은 하나도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좀 황폐하고... 우리 애도 대화하면은 깊이가 없어요...

(사례3의 母)

한편 학생들과 어머니들은 학교교육이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삼다보니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이 고려되지 않는 주입식 교육과 성적에 의한 평가, 상위성적 학생중심의 수업운영에 대한 불만 등은, 이종각(1988)이 우리나라 교육의 7가지 부정적인 특징으로 지적했던 내용들 중 배타적 경쟁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단지 평가를 위하여 교육하며, 학교운영의 기본원리는 성적향상이고, 교육에서 채택되는 교수학습방법은 암주법(암기주입식)이라는 점등과 일치한다. 이는 현재 우리의 교육풍토 속에서는 단편적 지식은 쌓을지언정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조력이나 상상력 그리고 지적 호기심 같은 고등정신능력을 길러질 수 없으며(김명자, 1994),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과 실험정신은 더욱이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너무 많은 교과목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과과정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주입식이라서 그게 불만이에요... 창의력이 없잖아요. 달달달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것만하지... 지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달달달한 걸로 애들이 평가받아야 하고... (사례6의 母)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몇 명뿐이구 중간 애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개네들 두 원가 잘 할 수 있는 애들인데... 개네들이 기를 펼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교육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사례4의 母)

외국 같은데 보면요 필수과목을 빼고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듣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과목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생활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도 있는데... 애들이 원하는걸 해 줬으면 좋는데 무조건 강요만 하니까요, 우리 의사는 안 물어보고.. (사례6)

이렇게 학교교육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불만은 결국 그 원인을 제공하는 현행 입시정책과 우리사회에 만연된 학력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만의 주 내용은 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은 무시된 채 단지 성적으로 대학의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과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만능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 등이었다.

만약에 유아교육과 그러면 공부만 잘 하면 유아교육과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애가 마이를 좋아하나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그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요. 원래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아닌데 전 그제 너무 이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점수로 대학가는 수능이 문제가 있지요. (사례5)

내신이다 수능이다 해서... 애네들을 완전히 팔방미인을 만드니까요.. 음악, 미술, 체육부터 시작해서... 사교성도 좋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엑스야 엑스 완전히... 옛날보다 애네들이 더 힘들어요.... (사례2의母)

학생들은 현 입시정책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머니들은 입시생 자녀를 둔 자녀교육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입시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바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은 먼저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입시정책으로의 전환이며, 또한 선진국처럼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들은 이러한 전환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인생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까지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기를 살릴 수 있었으면 해요... 학교에서요 특기반을 뒤편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 관해서 관심 있으면 컴퓨터만 계속 가르쳐서 대학을 가게요, 우리 반에 컴퓨터 되게 잘 하는 애 있거든요, 걔가 서울시 뭐 홈페이지 금상을 받았는데요, 걔는 맨날 밤을 새고 학교에서는 지거든요, 그런 애한테 공부는 무의미하다고 걔한테는... (사례2)

지금보다도 문을 넓혀 주면은 아이가 첫째는 심적으로 큰 부담을 덜 갖게 되고... 그리고 부모입장에선 사교육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사례7의 母)

일단 좀 들어가기가 쉬웠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편안하게 해줘야지 제대로 성장을 할 텐데 그게 안타까워요, 여유라는 게 없고...

(사례3의 母)

이렇듯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자녀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대학진학위주의 획일적인 학교교육과 성적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대학입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생개개인의 소질과 특기가 반영되어 교육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과 대학입시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성적에 인한 평가와 차별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도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포기했던 자신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고 사교육에 투자했던 경제력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의 학력주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오로지 공부만 강요되며, 대학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척도인 학업성적은 그들의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즉 성적은 고등학생들의 현재의 성공과 실패뿐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 자체를 결정하는 척도가 됨으로써 모든 고등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좋은 성적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가치이며, 학교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참고 노력하여 성취감을 얻음으로써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반면 성적이 좋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 느끼는 학업부진과 특히 교사의 성적에 의한 차별로 인해 성적이 고문으로 여겨질 정도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 가출이나 자살 등의 행동을 하게 되어 사회문제를 낳게된다.

한편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사교육에의 집착을 낳게되며, 그에 따라 어머니들은 정신적·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지나친 교육열은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된다. 즉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들은 가정에서만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어머니들의 도구적 자녀교육관은 도리어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자녀들은 위로를 받을 마지막 안식처마저 잃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머니들의 경쟁의식이 곧바로 자녀들의 경쟁의식을 낳게된다는 점으로, 어

머니는 자녀에게 공동체 의식이나 남을 위한 배려 등 사회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것만이 최고라는 가치를 심어주어 결국 자녀의 건전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막게 된다. 또한 사교육에의 맹신은 저소득층 부모들에게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방해하여 교육의 파행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의 일차책임자로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인성교육부재의 가정교육, 사교육의 사회문제화, 그리고 성적으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겪어야 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험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상 피할 수 없는 과정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여가시간을 가져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신이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에게 몇몇하게 되면 부모도 자녀를 믿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자녀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제보학생들이 지적하였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도리어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는 정서적, 신체적, 지적, 인성적 발달을 포함하는 전인적 발달과정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아울러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함으로써 자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 모두의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바람직한 사회화의 산실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편 학부모 문화는 그 나름의 능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능동성이 사교육의 지향 등 부정적인 측면을 지향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건전한 방향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사적차원에서 일으켰던 치맛바람을 공식적 차원에서의 학교발전 나아가 교육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담교사로 활동함으로써 교사들의 짐을 덜어준다든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식적 차원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의 교육풍토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교과목들을 위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으로, 제보학생 대부분이 지적하였듯이 모든 공부가 거의 강요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는 대학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운영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또한 현재 한 학급에 절반정도의 학생들은 사실상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들에게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그들도 몇몇몇한 사회성원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주요교과목의 보충시간이 되어버린 CA시간을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 그 시간만이라도 학업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차원에서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실시하여 그들이 건전한 자녀교육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즉 자녀의 적성과 특기를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과, 자녀를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케 하는 가정교육과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깨우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변화 및 자녀의 변화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급한 것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다.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전화상담과 청소년상담소를 확대보급하며, 특히 인터넷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즉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소질을 평가하는 대학입시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점수의 높낮이로 학생입학의 당락을 정당화시키는 시험점수 중심의 입학제도는 단지 점수로 학생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적성이나 특기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전형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의 문은 넓히는 대신 졸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도 지금의 단지 학벌이나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진정한 상아탑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학교를 활성화함으로써 상이한 생활을 지향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그들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대우, 과도한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을 지양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실시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오늘의 교육·입시문제는 부모, 학교, 사회, 국가 전체의 책임이므로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정책차원에서 상호 통합되어 실시될 때 미래 우리사회의 주인인 고등학생 나아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법은 고등학생들과 그 어머니들의 현실에 대한 해석을 연구자가 재해석한 것으로 연구자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제보내용이 그들의 주관적인 세계를 드러내주는기는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는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외(1992). 입시위주교육의 실상과 대책(I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계선자 외(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권 2호, 57-72.
- 고성혜(1994). 가족관계, 한국가정관리학연구회 제1회 심포지엄 자료집, 중고생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 김경신(1994). 대입수험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서울 : 하우.
- 김계현 외(2001).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 학지사.
- 김명자(1994). 대입수험생 가족의 전반적 현황 및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서울 : 하우.
-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0호, 67-79.

- 김소희(1991).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서울대 석사논문.
- 김종주(1990). 입시병, 서울 : 하나의학사.
-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 누구에게 속한 아이들인가?- 서울 : 학지사.
- 김희복(1992). 학부모문화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 박사논문.
- 노경희(1998). 남자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가족지지,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 손승영(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서울 : 생각의 나무.
- 엄명용(2000). 비행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 사회복지학, 42권, 가을호, 254-289.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숙대 박사논문.
- 이미숙(1994). 한국가족의 교육열 과잉현상과 관련가치관,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 교육열과 대학입시, 서울 : 하우.
- 이성식(1996). 학업성적과 자긍심, 한국청소년 연구, 제24호, 1996, 봄호, 30-47.
- 이수연(1998).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 관한 반증적 사례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재구·김영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8권 12호, 145-158.
- 이종각(1988). 연합적 경쟁구조와 학생 삶의 구속논리, 안범희 편, 교육민주화, 춘천 : 강원대 출판부.
- 이지연(1993).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이혜영(1995). 학력주의와 삶. 한국청소년 연구, 제20호, 1995, 봄호, 30-45.
- 정은주(1999).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 조용환(1999). 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종합적 이해와 비판.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유형(1995). 남자고등학생의 임시스트레스와 가족기능과의 관계. 전남대 석사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6). 청소년 학업상달. 서울 : 정민사.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147-160.
-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통계청(1999). 1999 한국의 사회지표.
- 한준상(1996). 학교스트레스 -시험제도의 개혁- 서울 : 연세대 출판부.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 사범대 논총, 41, 3-29.
- Campell, J. R.(1994). Developing cross-cultural/ cross-national instrument: Using cross-na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J of Educational Research* 21, 675-684.
- Campell, J. R., & Manddel, F.(1990). Connection math achievement to parental influence. *Com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5, 64-74.
- Fraser, M. W.(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347-361.

- Fugita, S. S., & Crittenden, K. S.(1990). Toward culture and population specific norms for self-reported depressive symptomatology, *J of Social Psychology*, 36, 83-92.
- Ketsetziss, M., Ryan, B. A., & Adams, G. R.(1998). Family proces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hild characteristic influencing school-based school adjustment. *J of Marriage and Family*, 60(2), 374-387.
- Lie, X., Kaplan, H. B. & Risser W.(1992). Decompos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general self-esteem. *Youth and Society*, vol. 24, 123-148.
- O'Donnell, J., Hawkins, J. D. & Abbott, R. D.(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3, 529-537.
- Owens, T. J.(1994). Two-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i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391-407.
- Rosenberg, M., Schooler C., & Sch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1004-1018.
- Sung, H., Lubin, B., & Yi, J.(199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Y-DACL). *Adolescence*, vol. 27, 527-533.
- Tylor, S. J., Bogdan, R. (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earch for mean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ABSTRACT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Stress With Study Load And Their Mothers' Stress

Kim, Myung-Cha · Lee, Jeong-Woo · Kye, Sun-Ja
Park, Mee-Sok* · Song, Mal-Hee**

An academic background oriented belief has severely affected home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in Korea. School grades which are a key role in entering universities decide life quality of students. The study revealed that students have ever experienced stress caused by study load or given by their parents and teachers. So do mothers who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ren educ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having interviews with 8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To get rid of this kind of stress we should change not only school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students' aptitude and talent but also entrance exams for universities which evaluate students' aptitude and talen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civil organizations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for adolescents and run various programs to get rid of their stress. For schools, they should make better use of CA to

*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ost-doc,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velop students' aptitude and talent. Parents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put into practice to enlighten the role of parents and good values of children education.